

부활하신 예수와 만난 사람들 * 3/10(수) 사도행전 8-10장

베드로 (1-12장)	유대와 사마리아 (8-12장)	바울 (13-28장)
예루살렘 (1-7장) 복음의 성장 승천, 오순절 성령, 선포와 표적, 일곱 집사 1-6장 스데반 순교, 펠박과 박해, 선포와 표적 7-8장 1-4장 거룩한 영, 성령이신 5-7장 성전보다 크신	복음 확장의 초석 사울의 회개 9:1-31 베드로와 고넬료 9:32-11:18 안디옥 교회 11:19-30 베드로 투옥, 헤롯의 죽음 12장 8-10장 부활하신 11-13장 온 세상의 왕이신	복음의 확장 1차 여행, 예루살렘 회의 13-15:35 2차 여행 15:36-18:22 3차 여행 18:23-21:16 펠박, 잡힐, 상소, 로마행 21:17-28장 14-17장 막힌 담을 허신

Before 출치며 읽기

<복음의 확장>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인물과 사건 살펴보기

유대인들은 여전히 <포로기> 상태에 있다고 느꼈습니다.

바벨론, 페르시아, 헬라, 로마제국, 이름만 바뀔 뿐

'왕' 없이 지배받는 신세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

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염원하며

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(신6:1-8).

After 묵상하기

당신의 열심은
사울의 열심입니까?
바울의 열심입니까?

광야 생활 중에 한 눈 팔던 일을 반면교사 삼고
<가나안 주민들>과 구별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
이방인과는 교제도 동업도 하지 않았습니다(민25:1-18).
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좀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
실천적이며 직관적인 표현들, 삶의 방식들로 구체화했습니다.
<하나님 신앙>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타협들에
민감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.

참고도서

백주년기념성서주석
바울평전(톰 라이트)

사울은 이러한 사랑과 충성이 남달랐던 청년입니다(갈1:14).
사울에게 예수와 제자들은 한 분 하나님 신앙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.
“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다니！”(성전정화사건 마21/막11/눅19/요12)
“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고? (행7:56)
신성모독이다! 유대인으로서의 충실과 순전함을 버리다니！”

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(8:1).
그는 ‘하나님’을 버리고 ‘예수’ 따르는 이들을 잔멸하고자
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(9:1-2).

“사울아, 사울아,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.
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(9:4-5).”

사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.
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.
하나님-모세-예언자들로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
예수님께로 연결되고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.
사울 역시도 유대인의 현실이 <포로기>에 면취있다고 생각했습니다.
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미 이 땅에 오셨으며,
십자가 죽음 후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.
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‘예’가 되었습니다(고후1:20).

사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.
최선을 다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애썼습니다.
비느하스와 엘리야의 열심도 불사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(민25:7-8, 왕상18:40).
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.
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부인하며 망치고 있는 당사자,
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, 눈멀어 있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.
“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.”(롬2:17-20, 딤전1:15)

사울은 자기 열심을 버렸습니다.
하나님의 사자(使者)가 되었습니다.
하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‘복음’,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.
“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! (9:20)”

사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3년 간 아라비아에서 지냅니다(갈1:17).
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하고, 십 여 년의 공백기를 갖습니다(갈1:18, 2:1).
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언약들이
어떻게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성취되었는지 연구하며 묵상했습니다(고후10:5).
하나님과 독대하며 ‘홀로’의 훈련을 마쳤을 때,
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를 사역 적임자로 발탁됩니다(11:25).

사울의 능력들은 이제야 바른 방향을 찾았습니다.
사aul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되었습니다.
부활하신 예수,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와 만난 사울은
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<하나님께> 묻게 되었습니다.